

제10권 12호

2020. 6. 8~2020. 6. 21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코로나19와 '부채경제' 시대의 도래 |
| 이슈분석 | 밀레니얼 세대의 재무 습관 이해 |
| 금융경영브리프 | Deloitte, 코로나19 이후 투자은행의 미래방향 제시
코로나19 이후 반세계화 흐름에 대비 필요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통화정책과 시장 간 줄다리기
외 환: 달러 약세 모멘텀은 제한적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세 전국으로 확산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곽영훈(yhkwak)
연구원 최희재(heejaechoi)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김대익(kimdi)
수석연구원 박지홍(jhpark525)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김수정(sjkim1771)
외 환 | 연구원 윤지선(jisun.yun)
부동산 | 연구위원 황규완(gwhwang)

금융지표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코로나19와 '부채경제' 시대의 도래
- 04 **이슈분석** 밀레니얼 세대의 재무 습관 이해
- 08 **금융경영브리프** Deloitte, 코로나19 이후 투자은행의 미래방향 제시
 코로나19 이후 반세계화 흐름에 대비 필요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통화정책과 시장 간 줄다리기
 외 환: 달러 약세 모멘텀은 제한적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세 전국으로 확산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코로나19와 ‘부채경제’ 시대의 도래*

유 경 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kwyoosmu@smu.ac.kr)

코로나19의 부정적인 경제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초유의 재정 및 통화·금융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들 정책에 대한 논란 가운데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사태로 본격적인 ‘부채경제(Debt Economy)’시대에 진입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높아진 가계부채 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부채와 기업부채의 축적이라는 부채경제의 도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채경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부채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의 부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4월 국내 취업자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가 1조원대에 육박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수출은 24% 급감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현실화되었고 이러한 수출급감으로 제조업 생산 관련지표가 모두 급격히 악화되었다. 한국은행은 최근 수정된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IMF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세계경제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통화 정책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올 부정적 경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G20 국가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대응수준을 넘어서는 GDP 대비 3.5% 수준의 지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 국가들은 공공의료와 소비, 취약 산업 등에 대한 지원 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장기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대규모 부양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러한 재정지출 소요는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래가 없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추경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지원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대비 양호하다는 주장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빚을 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인데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급격한 채무증가속도를 감안하면 재정적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채무가 많을수록 부담이 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다. 우리의 빠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부채가 과다하면 정부의 재정활동에 부담을 주고 금리급등, 경기침체 등 충격이 발생할 때 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포스트 코로나19, '부채경제' 시대의 도래

코로나19 사태로 가
계·기업·정부의 빚이
모두 증가하는 '부채
경제' 시대 도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비용으로 발생하는 국가채무 문제 이외에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다른 채무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채무는 물론 기업부채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코로나19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기업, 정부 트리플 크라운 부채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

BIS에 따르면 정부, 가계, 기업 부문을 합친 우리나라 총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GDP의 약 2.4배에 달하며, 부채증가속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빨랐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주요 52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가계소득 감소가 올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다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위축과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하로 이자부담이 줄어들면서 기업과 가계의 대출은 한동안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한 기업이나 실직, 급여삭감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임금 근로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줄지만 동시에 대출 역시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수록 이와 같은 정책은 빚을 통해 빚을 갚는 구조가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 내면서 이후 더 심각한 부채경제의 확산, 즉 ‘팬데믹(Pandemic)’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의 놀라운 확산세로 인해 각국 정부들이 초유의 방대한 재정지출 패키지를 쏟아내게 되었고 이는 세계적인 부채급증과 이로 인한 보다 심각한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의 경기부양책이 불가피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채경제에 대응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 부채경제 시대의 위험과 대응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누적으로 인한 부채경제는 향후 경제의 변동성을 보다 확대시킬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채경제 상황에서 경기침체의 골은 커지며 회복기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부채경제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앞으로 경기가 살아난다면 지금 돈을 끌어다 써도 상관 없지만 내수는 계속 침체하고 세계경제도 안 좋아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부채의 관건은 수익성이다. 부채는 미래 발생할 소득을 담보로 현재 돈을 가져다 쓰는 행위이며 수익성은 경제 활성화가 관건이다. 즉 부채를 통해 수익성 높은 자산이나 투자활동에 쓰였다면 괜찮겠지만 부채가 수익성이 낮거나 사회복지를 대체하게 된다면 결국 부채는 유지하기가 어렵다.

부채의 활용은 두발 자전거와 같다. 페달을 지속적으로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듯이 부채가 상환되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채경제는 외부적인 충격에 취약하여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사고가 날 수 있다. 결국 경제가 멈춰서는 순간 경제는 균형을 잃고 고꾸라지게 될 것이다.

부채경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낮추는 ‘아름다운 채무조정(Beautiful deleveraging)’이 필요하다. 아울러 부채경제의 위험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실을 장기에 걸쳐 사회화, 즉 통화·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 사회전체가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부채경제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며 고통을 수반하는 디레버리징 노력과 재정효율화 그리고 혁신적인 통화·금융정책이 요구될 것이다. 

부채경제 위험관리를 위해 ‘아름다운 채무조정’이 필요하며 경제성장과 부채의 사회화가 긴요

밀레니얼 세대의 재무 습관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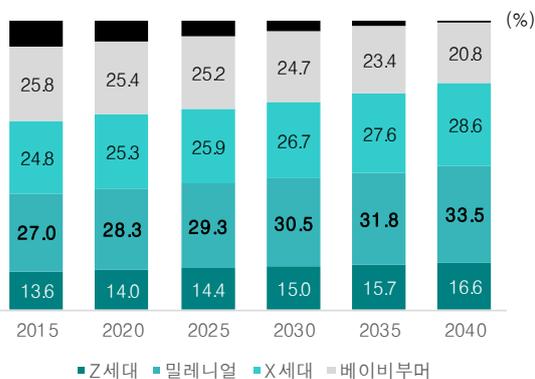
조수연 연구위원(sucho@hanafn.com)

2020년 국내에서도 밀레니얼 세대가 잠재적 고객을 넘어 경제활동과 소비의 주축 세대로 부상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 조사 결과 미래 재정적 준비에 관심이 많으며, 금융을 어려워하면서도 디지털 기기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세대답게 온라인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관리하려는 독립적인 성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금융사들도 밀레니얼 세대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로열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밀레니얼 세대는 가장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활동과 소비의 주축세대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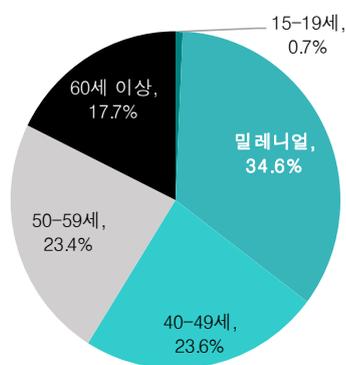
- 국내 밀레니얼 인구는 통계청의 2020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약 1,417만명에 달하며, 가장 인구 비중이 높은 세대
 - 밀레니얼은 '81~'00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로 디지털과 함께 자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세대
 - 세대별 인구 비중('20년 기준): 밀레니얼 28.3%, X세대 25.3%, 베이비부머 25.4%
- 2020년에 밀레니얼 세대가 만20~39세에 도달하여 최대 인구를 넘어 경제활동과 소비에서도 핵심 세대로 자리매김
 - 경제활동 인구 중 밀레니얼 세대의 비중은 약 34.6% 수준
- 당 연구소는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와 재무습관을 이해하고자 20-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세대별 인구 비중 변화 전망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표 2017-2047", 2017

■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구성 비중(2020년 1분기)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

■ (소비 성향) 밀레니얼은 전체 예산에서 저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월별 계획에 기반한 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함

- 평소 전체 예산에서 저축을 우선적으로 한 후, 남은 예산 내에서 구매/소비 활동을 한다는 밀레니얼이 63.2%로 나타남
 - 반면, 갖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바로 소비한다는 응답은 14.0% 수준
- 월 단위 계획 하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으며, 만족이나 재미를 위한 무계획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비율은 낮은 편
 - 대부분의 밀레니얼은 월별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관리(88.6%)
 - 소비 최소화가 가장 중요한 재테크라고 생각하고 계획 하에 예산을 관리
- 밀레니얼은 사회적 가치보다는 자신의 취향이나 신념을 기준으로 소비 대상을 결정하고, 소비의 방식에서는 목표와 계획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 성향을 보임

■ (관심사) 현재의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재정적인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음

- 밀레니얼 세대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현재 최대의 관심사는 재테크(30.8%), 건강(15.5%), 취업/이직(14.0%) 순¹¹
- 현재를 즐기는 것보다 노후를 위해 미리 재정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노후 준비에 대한 계획은 다소 막연한 편
 - 노후를 위해 미리 재정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63.6%)가 노후 준비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11.3%)보다 높게 나타남

■ 밀레니얼의 소비 성향 응답 결과

	A와 유사	보통	B와 유사	
A. 가지고 싶은 것 혹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바로 구매/소비를 하는 편이다	전체			B.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고 남은 예산에서 구매/소비를 하는 편이다
	14.0%	22.8%	63.2%	
	20대			
	14.6%	20.2%	65.2%	
A. 계획적이지 않더라도 만족, 재미를 위한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B. 소비는 항상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5.9%	27.1%	57.0%	
	20대			
	16.0%	26.4%	57.6%	
	30대			
	13.4%	25.4%	61.2%	
	전체			
	15.8%	27.8%	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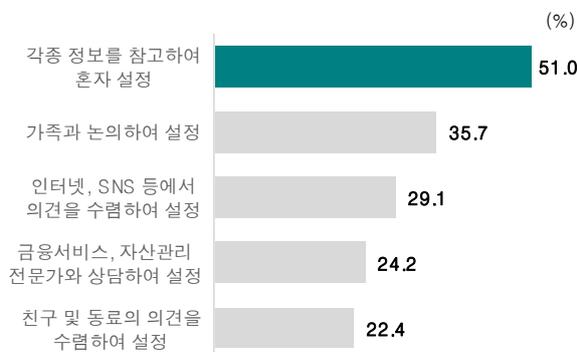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밀레니얼 설문조사, 2020

[1] 현재 관심사 1순위 응답 결과

■ (재무관리 성향)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목표 수립과 재무관리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금융 전문가의 도움에 대한 니즈는 여전히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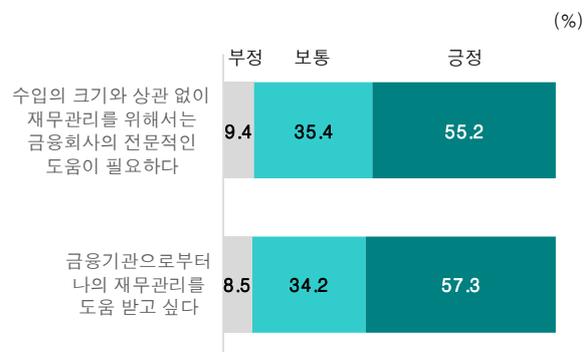
- 밀레니얼의 79.6%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대략적인 중·장기적 재무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으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응답은 20.4% 수준
- 쇼핑, 소셜 활동 등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재무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
 - 재무관리 관련 사항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60.1%에 달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8% 수준
 - 중·장기 재무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여 혼자 결정한다는 밀레니얼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가족과 상의하여 결정 순
- 재무관리를 위한 활동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 이용이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오프라인 활동 비중은 낮은 편
 -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카페/블로그 가입 및 구독(39.2%), 유튜브 금융 전문강의 시청(35.4%), 금융기사 구독(26.2%), 금융사 지점 방문 후 상담(21.9%), 현재 특별히 하고 있는 활동 없음(17.7%), 관련 세미나 참석(12.2%) 순
- 밀레니얼 세대는 재무관리를 독립적으로 하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는 니즈 역시 상존
 - 수입에 상관없이 재무관리에 금융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55.2%)
 - 자신의 재무관리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다는 밀레니얼은 57.3%이며,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8.5%에 불과
- ‘금융은 어렵다’고 생각하여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보유하고 있으나, 내 관점에 적합한 조언 제공 여부와 편하게 상담 가능한 환경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실제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은 적은 편

■ 중·장기 재무 목표 설정 방법(복수응답)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밀레니얼 설문조사, 2020

■ 금융기관의 재무관리 지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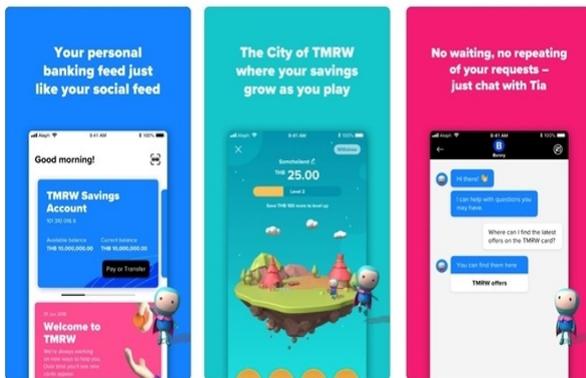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밀레니얼 설문조사, 2020

■ 금융회사들은 경제와 소비의 주축이 된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기대에 적합한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며 로열티를 강화할 필요

- 밀레니얼 세대는 이미 경제 주체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세대와 차별적인 가치관과 서비스 이용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미래 재정적 안정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계획을 세워 독립적으로 재무관리를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함
- 싱가포르의 UOB는 밀레니얼 세대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모바일 전용 은행 ‘TMRW’를 런칭하고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
 - SNS 피드같은 UI, 저축 증가에 따라 가상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게임화 기능, AI채팅 중 직원과 전화 연결 등 흥미를 유지하며 필요 시 지원 가능하도록 구성
 - 은행 전문 용어가 아닌 일상 용어를 사용하여 단순하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
- JP모건은 커뮤니티 센터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Flagship 지점’을 뉴욕에 개설하고 밀레니얼 고객을 위한 새로운 지점 경험 모델을 도입
 - 태블릿으로 거래하는 디지털 어드바이스 바(Digital advice bar), 전용 상담 공간, 시간 외 커뮤니티 이벤트 및 금융 교육 세션(Chase chats) 등 차별적인 경험 제공
 - 재무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면서 브랜드를 경험하는 공간을 지향
-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스스로 관리하고 싶어 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기관은 신뢰와 로열티를 강화할 필요
 - 디지털을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제어권을 부여하고, 온라인 채팅이나 고객 지원에 문의하기 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도움말 솔루션을 통해 독립적 관리를 지원
 - 금융의 문턱을 낮춰주는 상담 서비스 및 재무관리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
 - 전체 고객 여정 상에서 디지털과 오프라인 경험을 조화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증진 

■ UOB 모바일 전용 은행 ‘TMRW’



자료 : UOB

■ JP모건 뉴욕 Flagship 지점



자료 : JP Morgan

Deloitte, 코로나19 이후 투자은행의 미래방향 제시

박지홍 수석연구원(jhpark525@hanafn.com)

투자은행 부문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다양한 내외부 요인들로 인해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Deloitte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향후 투자은행(IB)의 서비스 모델이 2가지 형태로 분리되어 각 플레이어가 상호 협력하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투자은행들은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플랫폼의 획기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며, 금융 기술 도입 확대, 데이터 활용 제고 등을 통해 고객 여정에 집중하는 데이터 중심의 회사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투자은행(IB) 부문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내외부 요인들로 인해 중대한 변화에 직면^[1]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전례 없는 공중 보건, 경제, 사회 부문의 충격은 전 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
- Deloitte는 투자은행 부문도 코로나19로 촉발된 주식 시장 하락, 금융규제 진화, 시장 민주화, 고객 눈높이 향상, 원격 업무(재택 근무)로의 전환, 빠른 기술 진보 등으로 인해 중대한 변화 기로에 있다고 분석
 - Oliver Wyman의 최근 보고서^[2]에서도 올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투자은행들의 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

■ Deloitte는 향후 투자은행이 2가지 형태로 분리되어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

- 현재 투자은행들은 종합서비스 모델(Full-scale services model) 형태이나 향후 프론트 오피스를 전담하는 Client capturer와 미들-백 오피스를 전담하는 Flow player로 분리되어 각 플레이어들이 상호 연결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
- Client capturer는 고객 대면 및 유치, 고객 요청 사항 관리 등 프론트 오피스 기능을 전담하며, 실제 거래 실행 단계에서는 Flow player 등에게 의존
 - 프론트 오피스 기능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자본만으로도 운영 가능
- Flow player는 거래 실행, 시장 조성, 프라이م 서비스 등 미들 오피스 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보고, 자산 서비스 등 백오피스 기능도 수행 가능
 - 업무 특성상 인프라 구축 등으로 많은 자본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

[1] "Bank of 2030: The future of investment banking", Deloitte, 2020.5.28

[2] "Steering through the next cycle", Oliver Wyman & Morgan Stanley, 2020.4.8

■ 다양한 참여자들이 어우러진 생태계 속에서 투자은행은 데이터 중심 회사로 변화

- 미래 투자은행 부문은 생태계 내 참여자들과 함께 표준화된 서비스로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금융회사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
 - Deloitte는 이러한 투자은행 부문 생태계 운영모델은 단순, 민첩하고 고객 중심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언급하며 Connected flow model로 명명
- 또한, 투자은행들은 고객 여정에 집중하는 데이터 중심 회사로 변화하며, 기존의 미들-백 오피스 기능은 시장 유틸리티 기업 또는 핀테크사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
 - 내부 및 외부(파트너사)의 풍부한 데이터를 통해 고객 행동을 모델링하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등을 통해 고객의 거래 활동과 위험 선호 등을 예측
 - 궁극적으로는 투자은행의 내부 시스템에서는 위험관리, 지급 및 결제, 데이터 분석 등 핵심 기능만 구현하고 나머지 기능은 외부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모델

■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플랫폼의 획기적인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제시

- 투자은행 부문은 여러 제약 조건(자본, 규제, 고객 등) 등으로 인해 타 산업 경쟁자의 진입이 어려우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환경 감안 시 변화가 필요
- 투자은행 부문의 미래를 위해서는 3가지 핵심 원칙 하에서 각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플랫폼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
 - ① 산업 전반의 협업 강화, ② 표준화 노력 강화, ③ 미래가치 투자 지속 등
- 또한, 투자은행 부문도 차별화된 통찰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 제고가 필요
 -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후 투자은행의 새로운 경쟁우위로 작용할 전망 

■ 투자은행 부문의 2가지 서비스 모델

구분	주요 내용
Client Capturer	- 고객 대면 및 유지, 고객 요청 사항 관리 등 프론트 오피스 업무 중심 수행 - 실제 거래 실행은 Flow player 등 파트너 업체가 수행 -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업무 수행 가능
Flow Player	- Client Capturer를 대신해 거래 실행 - 시장 조성, 프라임 서비스 등 제공 - 보고, 자산 서비스 등 백 오피스 기능도 수행 가능 - 인프라 구축 등으로 많은 자본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

자료 : Deloitte

■ 투자은행 부문의 미래를 위한 3가지 핵심 원칙

핵심 원칙	주요 내용
① 산업 전반의 협업 강화	투자은행 부문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을 위해 핀테크, 유틸리티 및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업 요구
② 표준화 노력 강화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의 채택을 장려하여 서비스 표준화를 확대하고 생태계를 구축
③ 미래가치 투자 지속	지속적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투자 함정(investment trap)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설정하고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 지속 필요

자료 : Deloitte

코로나19 이후 반세계화 흐름에 대비 필요

최 제 민 연구원(jeminchoi@hanafn.com)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교역량이 대공황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등 반세계화 움직임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모멘텀을 잃어버린 세계화는 코로나가 유발할 것으로 예견되는 세계 공급망 재편, 경제 국수주의 심화 등의 충격을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반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급망 조정, 자동화 등 경제지형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반세계화,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한 우려 증가¹⁾

-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국경봉쇄, 무역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 곳곳에서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등 반세계화 움직임이 강화
 - 세계화에는 사람(노동자, 학생, 관광객 등)과 국경간 무역거래, 투자, 데이터, 아이디어, 기술 등 다양한 요소의 통합(integration) 및 상호작용(interaction)이 포함
- 다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선진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동화(무인화) 가속화 등을 주축으로 한 세계화의 부분적 되돌림에 대한 우려를 표명

■ 향후 세계화는 ‘Slowbalisation’(또는 Peak Globalisation)에 이어 후퇴기에 진입 전망

-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화는 ①산업화 시대 ②세계대전 ③세계대전 이후 ④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정점에 달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기 돌입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급감한 세계교역량은 '10년 강력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글로벌 공급사슬(GVC)참여도 감소하는 추세
- 금융위기發 불확실성 및 저금리로 해외 공급망 확장보다 리쇼어링과 자동화를 택하는 기업이 늘어났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충격으로 더 강화될 전망
 - 저금리 및 기술발전으로 로봇 투자의 효용 증가(인건비 대비 로봇 구입 비용 감소)
- 또한,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G0 시대) 속 높은 정치·외교·보건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 높아 각국 정부와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
 - 코로나 이전부터 브렉시트, 트럼프의 ‘America Frist’ 정책, 미중 무역전쟁, 중국의 국내 발전 전략 강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

[1] "The Pandemic adds momentum to the deglobalisation trend", VOX, 202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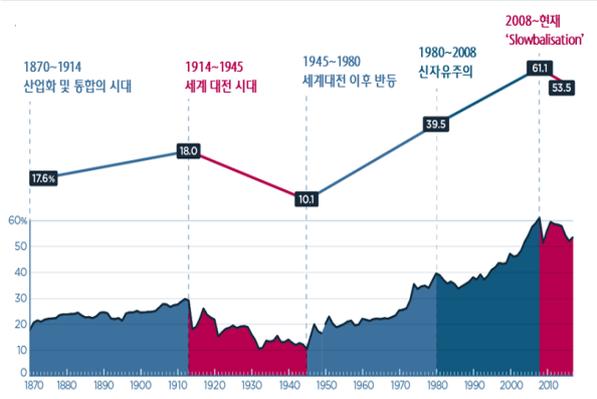
■ **필연적인 세계화의 부분적 되돌림 속 경제 불안정성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유의**

- 최근 세계적으로 세계화의 확실한 효용(생산성 향상, 다양성, 시장기반 확대 등 다수)에도 불구하고 반세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증가
- 이는 세계화로 인한 과실의 불균등한 분배, 교역 상대방 국가의 불투명·불공정성에 대한 피로도 누적, 기술 발전·자동화에 따른 공급망 확대 유인 감소 등에 기인
- 또한, 금융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외생적인 충격은 높은 불확실성을 동반해 국가에는 대의의존도를 낮출 유인을, 기업에는 전략 변경 및 자원 재배치 유인을 제공
-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날 세계화의 후퇴는 GVC 재편, 다자무역주의 훼손을 통해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고 거시경제 환경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가능성
 -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선진국내 불평등 확대에 따른 포퓰리즘 확산,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부작용 등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 예상
- 특히, 반세계화 흐름 속 경제 및 산업지형의 재편이 촉발할 수 있는 신흥국 경제 위기, 산발적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유의

■ **세계 경제지형 변화에 맞춰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존 전략 재평가 및 리스크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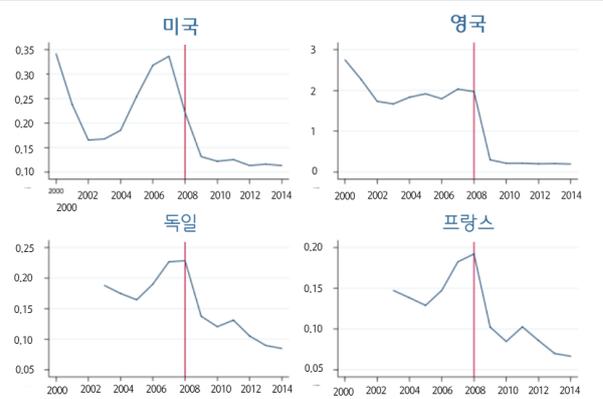
- 코로나19는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변화의 모멘텀을 수반하고 있어 국가·기업·개인 모두 기존 전략 사업 등에 대한 재평가 필요
-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및 산업지형의 변화를 민감하게 파악해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 4차산업 혁명 가속화 및 자동화 과정에서 국가별·산업별 육석을 가리기 위한 글로벌 경제 구조적 변화 파악 및 모니터링 지속 요망 

■ **시대별 세계화(Globalisation) 추이**



자료 : PIIE(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 **금융위기 이후 시간당 임금 대비 로봇 도입 비용 급감**



자료 : Kilić-Marin(2020) 재인용, ECB, EU KLEMS, World Bank

금리: 통화정책과 시장 간 줄다리기

김 수 정 수석연구원(sjkim1771@hanafn.com)

글로벌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는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위험선호 심리 속에 미국 국채를 비롯한 주요국 금리가 빠른 반등을 보였으며 국내 금리도 3차 추경 발표와 외국인 선물 순매도가 맞물려 상승했다. 연준은 국채 발행 증가와 시장금리 상승에 대응한 장기금리 타게팅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6월 FOMC에서 관련 내용이 발표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험선호 지속되며 주요국 금리 상승

- 미국 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연속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재증가하고 뉴욕 연은 주간경제지수(WEI)도 반락하는 등 경기회복 강도가 크지 않은 모습
 - 5월 5주차 신규 실업급여 청구건수(188만건)가 예상치(180만건)를 상회함은 물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연속 청구건수 또한 재증가(64.9만건 증가)
- 유로존이 7,500억 유로의 공동기금을 조성한데 이어 ECB는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을 증액(7,500억→1.35조 유로)하고 매입 기간도 2021.6월말로 연장
- 주요국 금리는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 지속과 연준의 채권 매입 축소, 확장적 재정 등에 따른 국채 발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
 - 주요국 10년 금리(%): 5.22일→6.4일: 美 0.66→0.83, 獨 -0.48→-0.32, 英 0.18→0.31

■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급 관련 우려와 외국인 선물 순매도로 금리 상승

- 5월 금통위에서는 올해 -0.2%의 역성장 전망 속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하(0.75%→0.50%)했으나 정례적 국채 매입 등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발표는 부재
-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 매각에서는 은행권 잉여자금이 크게 확대된데 따른 영향으로 사상 최대 응찰액 관측(6.4일 110.7조원, 2019년 평균 응찰액 18조원)
- 기준금리와 연동해 CD/CP 금리는 큰 폭 하락한 반면, 국채 금리는 3차 추경 발표와 금통위 실망감, 외국인 KTB 선물 8거래일 연속 순매도 영향으로 상승
 - CD91일물: 5.22일 1.02% → 6.4일 0.80%, CP91일물: 5.22일 1.90% → 6.4일 1.61%
 - 국고 3/10/30년 금리(%): 5.22일 0.84/1.35/1.49 → 6.4일 0.87/1.43/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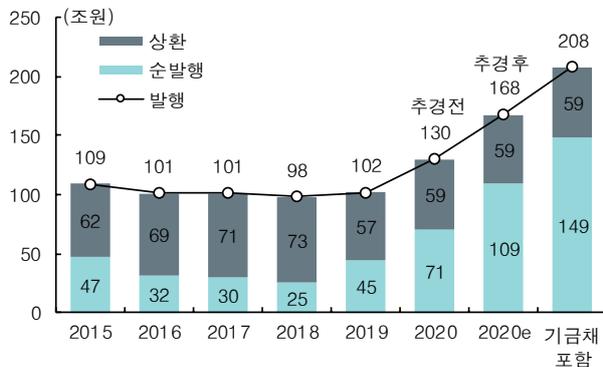
■ 3차 추경 확정과 기금채 발행 가시화 등으로 한국은행의 채권 매입 가시화

- 정부가 35.3조원의 3차 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추경 재원 중 23.8조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국채 발행량은 168조원으로 증가
- 이는 작년 발행 물량 대비 65% 증가, 순발행 기준으로는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6월말에는 40조원 정부 보증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
- 반면 연초부터 5개월 동안 20조원이나 채권을 순투자하며 시장 수급을 뒷받침해주던 외국인은 최근 차익거래유인 감소 및 6월 대거 만기도래를 앞둔 선매매로 채권 매수가 크게 둔화
 - 외국인 원화채 잔고(조원): '19년말 123.9 → 5.20일 144.4 → 6.3일 142.7
- 조만간 한국은행의 채권 매입이 발표되겠으나 국내 장기금리 상승 정도가 주요국 대비 크지 않은 점 감안시 단기간 내 정례적 국채 매입 등의 조치는 기대난
 - 선진국형 양적완화를 실시 중인 비기축통화국은 호주와 폴란드, 칠레 등

■ 한은 채권 매입 기대, FOMC의 새로운 정책수단 시사 가능성은 금리 추가 상승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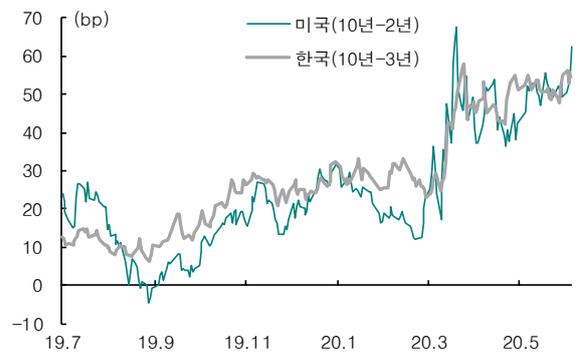
- 외국인의 단기채 매수가 둔화되고 있으나 MMF 등 단기자금 확대 영향으로 투신의 경우 단기채 순매수를 크게 늘리고 있어 금리 하락압력이 이어질 전망
 - 투신 1년 이하 순매수(일평균, 조원): '20.1Q 0.3→4월 0.8→5월 1.0→6.1~4일 1.4
- 한국은행의 채권 매입 정책 발표 기대가 오히려 장기채권 매수세 유입으로 이어지면서 장단기 금리차 확대 정도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전망
- 또한 연준이 장기금리 타게팅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가운데, 6월 FOMC에서 관련 내용이 발표될 수 있어 대외발 금리 상승 정도가 완화될 수 있을지 주시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0.80~0.98%, 1.35%~1.55% 범위로 예상 

■ 국채 발행 추이 및 전망



자료 : 기획재정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한국과 미국 장단기금리차 추이



자료 : Bondweb

외환: 달러 약세 모멘텀은 제한적

윤지선 연구원(jisun.yun@hanafn.com)

주요국 경제 재개가 확대되고 각국 정부의 적극적 경기 부양이 지속되며 글로벌 자산시장은 완전한 위험 선호 랠리를 시현하였다. 특히 유로존의 적극적 부양 의지가 확인되며 유로화는 큰 폭 강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달러는 빠른 속도로 절하되었다. 그러나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 및 홍콩 관련 노이즈가 아시아 통화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당분간 위험자산 랠리가 숨을 고르며 원/달러 환율 하락은 제한되겠으나, 강달러가 멎으며 고점 역시 낮추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 급등 이후 글로벌 위험선호 현상 확대 속에 1,210원대로 반락

- 홍콩을 둘러싼 미중 긴장 고조와 홍콩 내 시위 격화 등 관련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어 원/달러 환율이 한때 1,240원대로 급등
- 그러나 이후 주요국 경제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가 확산되고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당국의 경계로 상승세가 제한되었음
- 특히 유럽 경제 부양책의 원만한 합의가 유로화 강세 및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위험선호 심리가 고조되며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로 큰 폭 하락을 시현
 - 한편 국내 조선업체들의 사상 최대 규모(약 24조원) 카타르 LNG선 수주 소식은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 낙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위험선호 확산 및 유로화 강세 랠리 속에 달러화는 빠른 약세를 시현

- 순조로운 경제 재개 및 주요국 경제지표 반등으로 글로벌 경기 낙관론이 고조되고 유로화가 랠리를 보이며 달러인덱스는 96대로 하락하며 달러화 약세가 진행
- 달러/유로 환율은 독일의 EU회복기금에 대한 태도 전환 및 ECB의 PEPP(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규모 확대 소식으로 120주 이평(유로당 1.136달러)을 상향 돌파
 - 5.27일, EU집행위원회는 경제회복기금 계획 'Next Generation EU'를 통해 7,500억 유로의 EU공동채권 중 5,000억 유로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데 합의
 - 6.4일 ECB는 PEPP를 기존 7,500억 유로에 추가로 6,000억 유로(시장기대 5,000억 유로)를 더 설정하고 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로 연장하기로 발표
- 위안화는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홍콩발 미중 갈등 영향으로 역외 위안화(CNH)가 장중 작년 고점인 달러당 7.2위안에 도달하는 등 他신흥 통화 대비 약세를 시현

■ 강달러는 일단락 되었으나, 약달러 추세는 더디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 달러의 펀더멘털 요인은 중장기적으로 달러에 비우호적으로 보이나, 최근 경기 및 미중 불확실성과 트럼프의 강달러 발언 등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지속
 - 중장기적인 달러 약세 요인: 1) 실질실효환율 기준 고평가되어온 달러 가치, 2) 주요국 대비 기준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 강도가 두드러진 미국의 정책기조, 3) 재정 및 경상수지 악화, 4)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탈달러화’를 위한 정치적 움직임
- 주요국 경제 재개가 확대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달러화 강세 흐름은 일단락되었으며 달러인덱스를 기준으로 고점을 보인 것으로 판단
- 그러나 경기 리스크 및 미중 불확실성 등이 여전히 상존해 있으며, 유로화 랠리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난주와 같은 빠른 약세는 제한될 전망
 - 부양책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경기에 반영되며 부양책만으로 유로존의 구조적 경기 둔화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고, 브렉시트 불확실성 역시 상존
- 특히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홍콩 및 미중 갈등 재료는 아시아 통화엔 절하 압력으로 작용하며 원/달러 환율 하락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달러화 약세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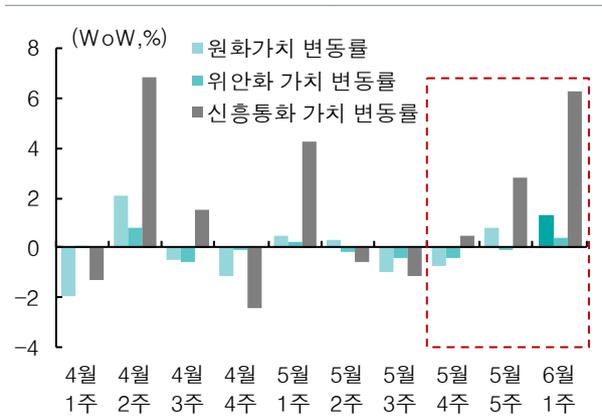
- 당분간은 위험선호 심리가 숨을 고르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다소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며 1,200원 선에서 지지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 다만 홍콩 이슈 및 미중 긴장 재부각시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전보다 고점을 낮추며 1,240원에서 저항을 보일 것으로 예상
- 6월에는 브렉시트 협상, FOMC(9~10일), OPEC+회의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5월 중국 수출입(8일) 등 지표를 통해 펀더멘털 점검의 시간을 가질 전망 

■ 달러인덱스와 유로/달러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 원화와 위와와의 강세는 신흥 통화 대비 제한적



자료 : Bloomberg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세 전국으로 확산

황 규 완 연구위원(gwhwang@hanafn.com)

설 연휴 이후 급등하던 주택가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비규제지역으로 투자자금이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풍선효과도 크게 줄었다. 총선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에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적응기간이 필요해 가격 안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20대 국회 임기만으로 자동 폐기된 부동산 규제 강화 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큰 차질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5월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는 등 주택가격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중

- 총선 결과에 따른 실망매물 및 보유세 절세를 위한 한계가구의 주택처분 등이 이어지면서 5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둔화
 -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0.54('20.3월) → 0.27('20.4월) → 0.14('20.5월)
- 설 연휴 이후 가격이 급등했던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권에서도 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는 등 가격 안정세는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
 - 주택가격 상승률(4월 → 5월) : 수도권 0.51% → 0.25%, 지방권 0.05% → 0.03%
-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자금이 몰리는 소위 풍선효과도 5월에는 크게 줄어 수도권 전반에 퍼졌던 가격 상승 기대감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
 - 수도권 비규제지역(18곳) 중 가격 상승폭이 4월보다 확대된 지역은 7곳

■ 매도자 및 매수자 양측 모두 변화된 정책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

- 21대 총선이 예상 외의 결과로 귀결되면서 매도자 및 매수자 양측 모두 새로운 정책 환경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
 - 현 집권여당은 헌법 개정을 제외한 모든 법 개정이 가능할 정도의 지위를 획득
- 정권교체 이후 강화된 규제가 다시 완화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한 투자전략에서 벗어나 투자자들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예상됨
- 다만,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고,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서두를 이유는 없어 당분간 주택가격 보합세가 유지되는 등의 안정적인 시황이 지속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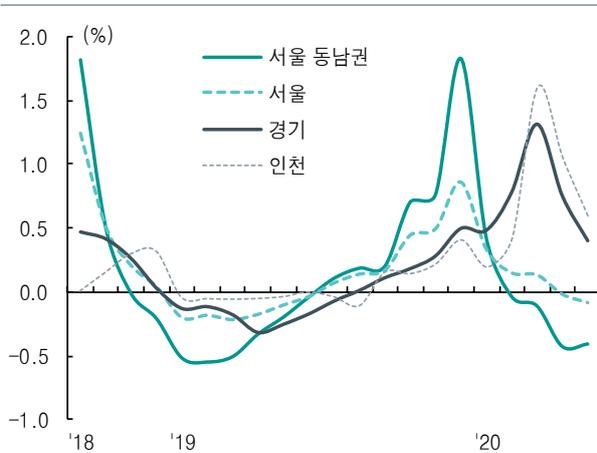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띠 전망

- 코로나19로 모델하우스를 활용한 전통적인 홍보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 분양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음
 - 5월 분양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 : 21.5:1, 4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 3.7만호
-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홍보의 어려움, 총선과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해 5월에 분양된 아파트 수는 기존 계획의 절반 수준에도 미달
 - 4월말 기준 5월 분양 계획 아파트는 6.9만호였으나 실제 분양된 아파트는 2.8만호
- 아파트 분양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6, 7월 중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는데 5월 이후 계획된 분양물량이 28.7만호에 달하고, 8월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등기 전까지 금지되어 수요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임

■ 12.16대책 후속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

- 12.16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만으로 자동 폐기 처리된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
- 거대 여당의 출현, 저금리 등 주택 가격 상승 압력 등이 크기 때문에 수요 억제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20대 국회에서도 개별 법안의 내용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았음
- 법 개정의 충격은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책이 제시된 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과거 조세 부담 강화 정책이 단기적인 주택가격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주 : 서울 동남권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자료 : 한국감정원

■ 12.16 대책 관련 주요 법 개정안(20대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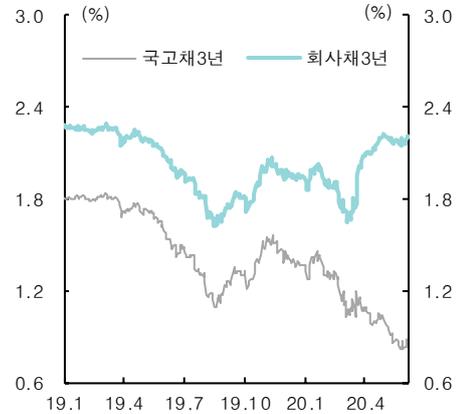
규제 내역	관련 법률	주요 내용
주택 보유부담 강화	종합부동산세법	중부세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선 상향
	소득세법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 강화, 분양권 양도세 강화, 단기보유자 양도세 세율 인상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주택법	불법 전매자 청약금지기간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임대등록 시 지방세 감면 혜택 조건 강화
	민간임대특별법	부정행위로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 등의 등록제한

자료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국회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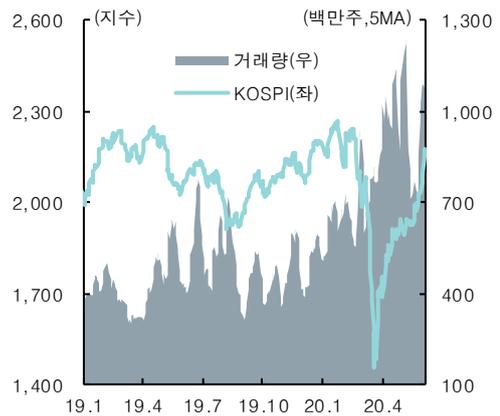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8년말	1.82	1.93	1.95	2.29	1.82	1.88
'19년말	1.39	1.53	1.49	1.94	1.36	1.48
4월말	0.76	1.10	1.07	2.22	1.01	1.25
5월 29일	0.49	0.81	0.77	2.16	0.83	1.10
6월 01일	0.49	0.81	0.76	2.16	0.83	1.12
6월 02일	0.47	0.81	0.76	2.18	0.85	1.13
6월 03일	0.47	0.81	0.78	2.20	0.87	1.15
6월 04일	0.46	0.80	0.79	2.22	0.89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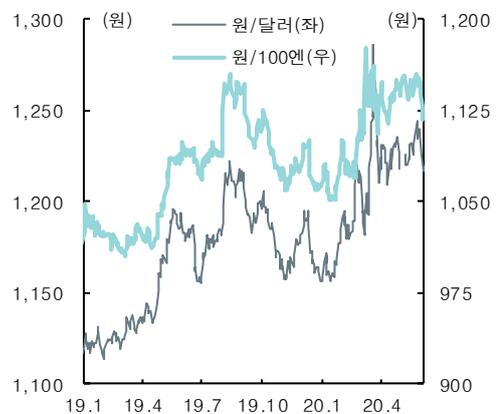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8년말	2,041.0	41,207	353	2,026
'19년말	2,197.7	41,136	416	-3,404
4월말	1,947.6	105,251	1,984	2,349
5월 29일	2,029.6	140,846	1,086	-1,990
6월 01일	2,065.1	98,397	997	1,089
6월 02일	2,087.2	102,329	1,000	-502
6월 03일	2,147.0	169,988	1,152	2,102
6월 04일	2,151.2	160,340	1,393	465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8년말	1,115.9	1,012.4	162.3	1,276.6
'19년말	1,156.4	1,064.2	166.0	1,297.1
4월말	1,218.2	1,142.4	172.2	1,324.7
5월 29일	1,238.5	1,148.7	173.5	1,375.4
6월 01일	1,225.0	1,138.5	171.9	1,364.1
6월 02일	1,225.4	1,127.8	172.6	1,368.7
6월 03일	1,216.8	1,117.2	171.0	1,366.8
6월 04일	1,218.7	1,116.6	171.4	1,3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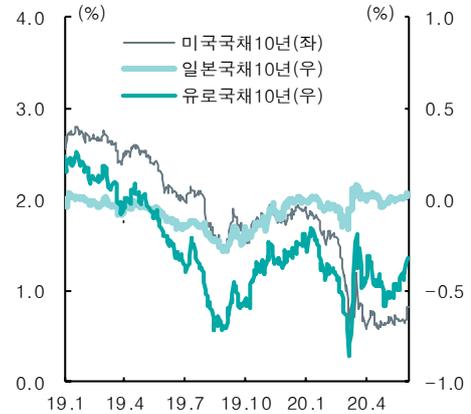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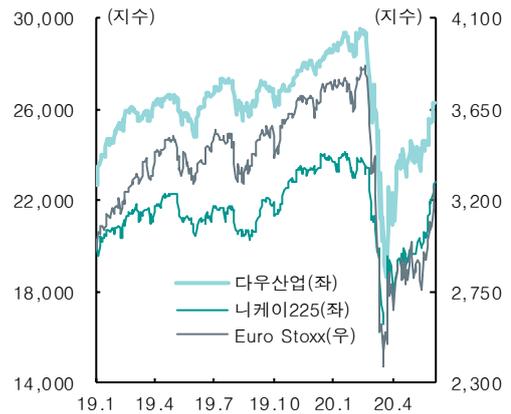
:: 금리

	미국			일본 국채10년	유로 국채10년	
	FFR	리보(3월)	국채2년			
'18년말	2.40	2.808	2.49	2.68	0.00	0.24
'19년말	1.55	1.91	1.57	1.92	-0.01	-0.19
4월말	0.04	0.56	0.20	0.64	-0.02	-0.59
5월 29일	0.05	0.34	0.16	0.65	0.01	-0.40
6월 01일	0.05	0.34	0.16	0.66	0.01	-0.42
6월 02일	0.05	0.33	0.16	0.69	0.02	-0.35
6월 03일	0.05	0.33	0.19	0.75	0.04	-0.32
6월 04일	0.05	0.32	0.19	0.82	0.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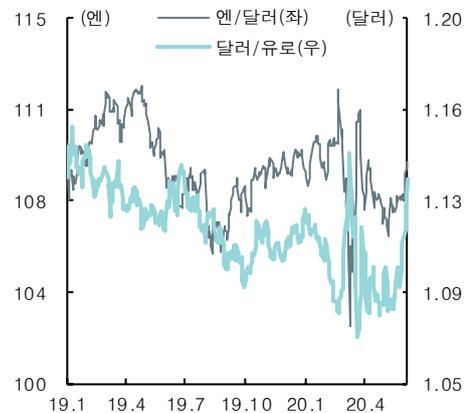
::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8년말	23,327.5	20,014.8	2,493.9	3,001.4
'19년말	28,538.4	23,656.6	3,050.1	3,745.2
4월말	24,345.7	20,193.7	2,860.1	2,927.9
5월 29일	25,383.1	21,877.9	2,852.4	3,050.2
6월 01일	25,475.0	22,062.4	2,915.4	3,077.9
6월 02일	25,742.7	22,325.6	2,921.4	3,159.0
6월 03일	26,269.9	22,613.8	2,923.4	3,269.6
6월 04일	26,281.8	22,695.7	2,919.3	3,261.7



::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8년말	109.61	1.146	52.9	1,281.3
'19년말	108.66	1.122	67.3	1,523.1
4월말	107.17	1.095	20.7	1,694.2
5월 29일	107.79	1.110	34.9	1,751.7
6월 01일	107.59	1.114	38.0	1,750.3
6월 02일	108.59	1.117	38.9	1,734.0
6월 03일	108.89	1.123	39.9	1,704.8
6월 04일	109.11	1.134	38.8	1,727.4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12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0년 6월 6일 인쇄

2020년 6월 8일 발행

발행인 지성규

편집인 곽영훈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12호

0732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나금융투자빌딩
Tel 2002-2200 Fax 2002-2610